



제품고급화 · 다양화 통한 고객만족 최우선

국내 블로우용기업계 신기술 도입 선도

국내 산업의 초창기라 할 수 있는 1964년 설립된 한국석유공업(주)를 모기업으로 해 지난 1991년 설립된 한석유화(주)는 국내 최대의 합성수지 종합판매전문회사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설립 이후 매년 20% 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기업이다.

산업경제의 기본인 플라스틱 원료를 판매하는 한편, 블로우용기 관련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한

석유화(주)는 항상 제품의 고급화와 모델의 다양화를 통해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996년에는 블로우공장을 인천으로 이전하면서 연간 2백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최고의 블로우용기 전문업체로의 발판을 마련, 플라스틱 산업의 중견기업으로서의 위치를 선점하고 있기도 하다.



▶ 이촌동에 위치한 한석유화(주)본사전경

현재 인천공장에는 특수제작된 블로우몰딩기 4대와 HWDPE 전용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3개업체와의 임가공생산을 통해 연간 중대형용기 약 2백만개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의 10%를 연구개발비에 투자함으로써 지속적인 신규용기의 개발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PE, PP 제조사를 제외한 판매업체 중 국내 선두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석유화(주)의 현재는 플라스틱 생산설비의 6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일대를 주요 활동기반으로 삼고 있어 그 의의를 더한다.

또한 기존의 판매망을 활용해 90년대 후반부터 ABS, PS, PPAM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PE, PP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 원료를 취급하는 종합원료회사로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한석유화(주)의 현재를 이끌어 온 김효순 대표이사는 항상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를 충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국내 합성수지 관련업계에서 30년 이상의 노하우를 쌓은 업계의 베테랑이다.

“늘 공존공영할 수 있는 업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라는 김 사장은 지난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고 현재까지 생존한 기업들의 경우 건실한 운영을 해 온 결과라면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만큼의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품의 고급화와 모델의 다양화를 통한 고객만족이 최우선이라는 의지를 설명했다.

이와 같은 대표이사의 의지를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고객에 대한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이



▲ 김효순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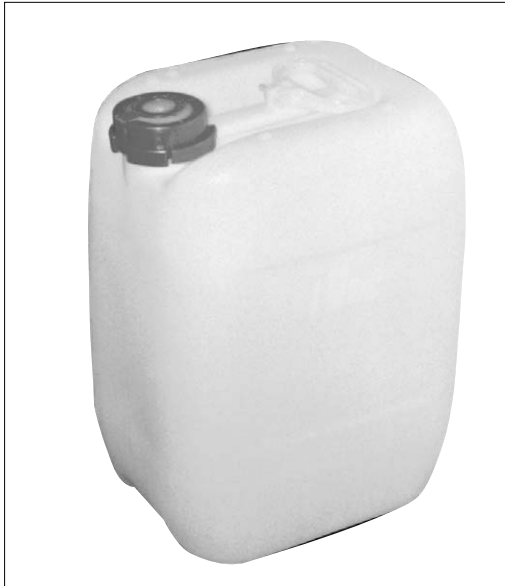
미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석유화(주)는 최근 두가지의 신제품을 선보여 또 한번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EZ-FLOW인데 이 제품에 대해 김병집 영업이사는 “확실적이고 고정된 용기의 개념에서 탈피해 약 3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한 한석유화(주)만의 특화제품으로 앞으로 용기 시장에서 큰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제품으로 자신합니다”라는 말로 이 제품의 기대치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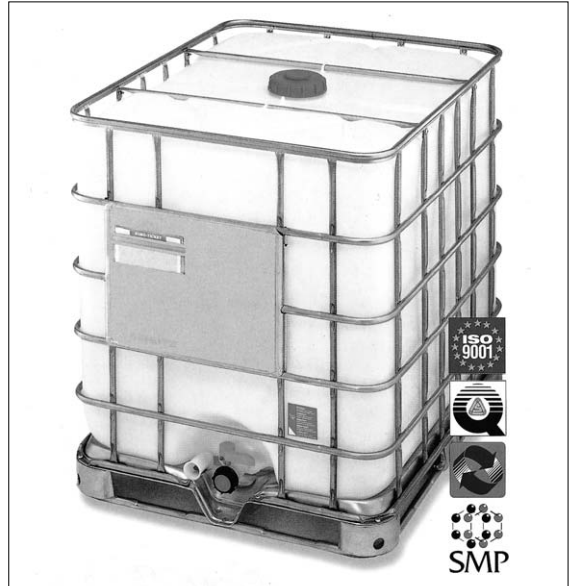
한석유화(주)만의 특화제품으로 개발된만큼 제품명에도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는데 EZ-FLOW는 쉽고 편안하게 내용물이 배출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배출작업시 안전성과 편리성을 강조한 브랜드네임이다.

이 EZ-FLOW의 주요 특징은 손잡이가 꺾임으로써 일반용기에 비해 배출작업이 훨씬 수월하고 자동화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내용물 배출시 쿨러거림이 없어 용기 안에 내용물의 잔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형용기의 경우 독성물질을 담는 경우가 많은



▲이번 달부터 생산·판매될 EZ-FLOW 시제품



▲독일에서 수입·판매되고 있는 ECOBULK MX

데 그간 밀폐력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 EZ-FLOW는 CAP의 밀폐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경나사를 도입, 완전누액 방지라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한편, 기존모델에 여타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모델을 쉽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특징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3월부터 시장에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현재 좀 더 미려한 외관을 갖춘 용기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디자인개발을 진행 중입니다”라는 김 이사의 말처럼 시제품임에도 기존 용기와 비교할 수 있는 미려한 외관이 눈길을 끄는 제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제품의 경우 고밀도 PE와 초고분자 원료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기존 제품이 2~3단 적재에

그쳤던데 반해 4단까지 적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세계특허를 출원할 예정이기도 하다.

또 한가지 신제품인 ECOBULK MX는 독일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제품으로 내장 컨테이너에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한 세계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지닌 제품이다.

충전과 배출작업, 라벨링 작업의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코스트다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저장공간을 절약함으로써 하역, 수송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 제품 역시 위험물, 독극물의 수송과 저장에 용이하다.

크지 않은 규모의 중소기업이지만 항상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할 수 있는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는 김 사장은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발굴하고 적성을 고려해 적절한 부서에 배치하고 공정한 능력의 평



▲ 인천공장의 블로우 용기생산현장

가와 승진제도를 시행, 직원들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열어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또한 기업문화교육과 인재육성교육을 동시에 실시해 직원들의 능력배양에 일조하고 있음을 밝혔다.

기업문화교육의 경우 한석유화(주)의 경영이념과 가치, 행동기준을 공유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단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초석이 되고 있으며 인재육성교육의 경우는 글로벌 시대 혁신마인드와 경영능력을 갖춘 변화관리자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규모가 큰 합성수지 시장에서 선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투영하는 계기로 삼고 있는 인재육성교육은 직원들의 전문성 교육에 적극적인 지원을 겸하고 있어 더욱 큰 의의를 갖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직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실천하고 있는데 지난 2월, 김효순 대표이사가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김병집 이사의 경우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모범적인 경영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항상 최고를 향해 올라가는 길은 가파르지만 최고의 위치에서 미끄러지는 것은 잠깐이라는 말을 들곤 했다.

최고라는 자만감이 열심인 후발주자들의 도전과 함께 쉽게 뒤처지기 때문이다.

현재 업계에서 큰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자부하는 한석유화(주)의 탄탄함이 바로 경영진을 필두로 한 전직원의 꾸준한 성장에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절감할 수 있었다. ☐

윤지은 기자